

유네스코 복합유산 개념으로 본 고창 해양신앙유적의 지속가능한 보존

황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학예연구관

편성철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folk9599@korea.kr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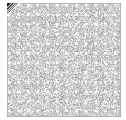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서 전승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 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화적 행위이자 의식이다. 마을신앙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살아있는 전통으로 최근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해양이라는 공간은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 가치와 유형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공존하는 고창의 마을신앙은 갯벌, 그리고 해양의 생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전승되어 왔다. 이에 마을신앙은 생태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과 활용 또한 생태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과 보호활동을 펼쳐야 한다.

요컨대 자연유산적 가치와 문화유산적,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고창의 갯벌과 해양신앙은 점과 선단위를 넘어 면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I. 머리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은 체결 이후 50여 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에 있어 세계유산협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이해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¹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메시지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의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유산을 보존 및 홍보하여 방문객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들이 지역사회의 삶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법, 관행으로 구체화하여 왔다.²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에 포함되는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부동산(不動)의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유산’의 개념은 점차 유형유산부터 역사적 중심지와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왔다.³ 특히 자연경관의 경우, 인간과 자연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통해 세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 및 유지하는 데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유산들이 세계유산 목록에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복합유산은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세계 유산으로 세계적으로 등재의 사례가 많지 않다.

한편 2006년 발효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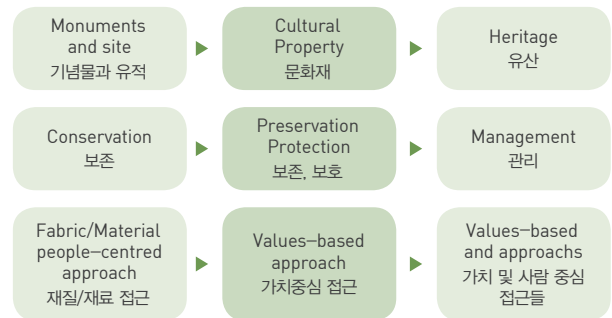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유산 담론의 진화도.

Cultural Heritage)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존중의 보장,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제정되었다. 현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1건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15건, 기록유산 16건에 비해 우세하다.

〈그림 1〉과 같이 세계유산협약 시행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유산의 담론은 진화하였으며, 변화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와 자연을 분리하여 실행하는 유산보존(Heritage conservation separating nature and culture)에서 문화와 자연적 요소를 모두 연계한 통합관리 추구(Integrated approach of linking nature and culture) 둘째, 사람들 및 공동체의 역할 소외와 전문가 중심(Role of people being excluded, expert-centred)에서 인간 중심의 접근-포괄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People centred approaches-inclusive governance) 셋째, 유산적 가치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거래됨(Heritage values traded off for economic values)에서 유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한 유산관리 방법 발전(Improve management practices for both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1 무노르 부슈나키, 2018, 『세계유산협약의 이행현황, 성과와 도전과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외교부·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p.6.

2 우리나라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지 올해로 34주년이 되었고, 문화재보호법과 아울러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를 마련해 왔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보호, 관리,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2010년 9월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었다. 이 때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문화재청 조직의 하나로 세계유산팀을 2015년 12월 30일 설치하였다.

3 ‘유산’의 개념은 ‘베니스헌장(1964)’과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1994)’, ‘유산 관행, 문화적 가치, 진정성의 개념에 관한 나라 플러스 20’을 거치면서 변화해왔다.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과 무형유산에 관한 두 가지의 국제협약(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양립 체제 하에서 세계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가, 지역, 공동체, 개인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의 결합은 ‘인간’, ‘자연’, ‘문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며, 유산의 보존관리 역시 이들의 개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고인돌과 갯벌, 2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고창의 세계유산 관리정책은 물론 향후 등재할 새로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준비를 위한 방향성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으로서 고창갯벌과 문화유산으로서 해양 마을신앙을 주목하여 첫째,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둘째, 고창해양신앙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기제로써 복합유산 등재의 가능성을 도출하며 셋째,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문화유산 ‘해양 마을신앙 유적’

1.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의 보존

1) 고창갯벌의 생태환경과 자연유산적 가치

‘고창갯벌’은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퇴적 시스템을 발달시

켰다.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⁵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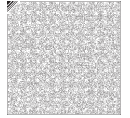
특히 고창군에 위치한 고창의 갯벌은 전형적인 개방형 갯벌(open-embayed type)이며,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정면적은 64.66km²이며 완충지역의 면적은 17.85km²이다.⁶ 완충지역의 북쪽 끝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새만금간척지에 속한다. 동쪽에서는 신창천이 흘러들어오고 남쪽에서 곰소만으로 갈곡천과 주진천이 흘러들어온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10년에는 람사르 습지에 등재되었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었다. 갯벌은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2,150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의 기착지 역할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서 문화유산이

4 가장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세미나의 제목은 ‘인간, 자연, 문화’였다. 유네스코의 유산에 관한 교육 역시 이 세 가지의 개념과 큰 카테고리 속에서 그리고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 인간, 자연, 문화』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IUCN, NORWEGIAN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ICCROM, 2022. 8.2(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5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www.eanews.kr(접속일: 2022. 9. 25).

6 두산백과, 「한국의 갯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38541&cid=40942&categoryId=33736(접속일: 2022. 9. 25).



13건인 반면, 자연유산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2건에 불과하다. 2건의 자연유산 중에서 고창의 갯벌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지위에 걸맞도록 체계적 보존·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고창갯벌은 이러한 생물학적 가치 외에도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진 문화사적 배경이기도 했다. 고창군 심원면 앞바다에 위치한 대죽도와 소죽도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패총이 존재하고 있다. 각종 문헌에는 소죽도에서 해양제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에는 대죽도 기우문(祈雨文)⁷이 전하기도 한다.

제사유적지와 유물은 고고학적 유적이고 유물이다. 고고학적 유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의 형태와 유물 등의 단서들의 추론을 통해서 문화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다. 이때 현재 남아 있는 고창 해안지역의 해양 관련 제사들을 문화적 배경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특히 대죽도, 소죽도 관련 기록이 단편적인 상황에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마을신앙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해석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무형유산으로서 고창의 갯벌어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11차 회의 결과에 따라 ‘갯벌어로’는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2021년 12월 20일에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되었다.⁸ 관보에 고시한 갯벌어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사유에는 역사성과 학술성이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발굴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고려시대 패총에서 갯벌에서 채취한 다양한 패류(참굴, 꼬막, 바지락 등)를 통해 갯벌어로의 역사성을 짐작할 수 있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토공·토산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 『여지도서(輿地圖書)』물산조,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玆山魚譜)』등 다양한 조선시대 문헌의 토산물로 갯벌 어획물(굴·조개·낙지·새우·감태·망둥이·게 등)이 등장하여 갯벌어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함”

“어로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고, 한국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갯벌에 따른 어로도구의 차이는 눈여겨볼만함. 펄갯벌의 빨배(널배), 모래갯벌의 굽게·써개·갈퀴, 혼합갯벌의 호미·가래·쇠스랑, 자갈갯벌의 조새 등 갯벌에 따라 다양한 어로도구를 확인할 수 있음.”⁹

이 밖에도 갯벌을 어촌계를 비롯한 어촌공동체에서 관리하며, ‘갯제’, ‘도깨비불 보기’, ‘등빠루놀이’ 등 갯벌어로와 관련된 생산풍습이라든가 어획물을 사용하여 생성된 음식문화, 그리고 생태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자연관은 ‘갯벌어로’가 무형문화재로서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높

7 고전번역데이터베이스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0#/dir/node?dataId=ITKC_MO_1023A_0140_070_0020&solrQ=query%E2%80%A0%E7%AB%B9%E5%B3%B6%E7%A5%88%E9%9B%A8%E6%96%87\\$&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MO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solr_solrId%E2%80%A0GS_ITKC_MO_1023A_0140_070_0020](https://db.itkc.or.kr/dir/item?itemId=M0#/dir/node?dataId=ITKC_MO_1023A_0140_070_0020&solrQ=query%E2%80%A0%E7%AB%B9%E5%B3%B6%E7%A5%88%E9%9B%A8%E6%96%87$&solr_sortField%E2%80%A0EA%B7%B8%EB%A3%B9%EC%A0%95%EB%A0%AC_s%20%EC%9E%90%EB%A3%8CID_s$&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2%80%A0MO_AA$&solr_toalCount%E2%80%A01$&solr_curPos%E2%80%A0$&solr_solrId%E2%80%A0GS_ITKC_MO_1023A_0140_070_0020) (접속일: 2022. 9. 25).

무장현감으로 있었던 정간(鄭幹, 1692~1757)이 남긴 ‘죽도 기우문’이 전해진다.

8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보고」 문건, 무형문화재과-4970호(2021.12.9.).

9 ‘갯벌어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www.korea.kr(접속일: 2022. 9. 25.).

다고 보았다.¹⁰

특히 어촌계를 비롯하여 수협 등 갯벌어로 지속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갯벌도립공원 지정 등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강조하는 전승활성화 의지에 있어서도 갯벌어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고창의 어촌마을 대부분이 현재에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을 유지하고 있고, 어업과 연계한 공동체 신앙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갯벌어로는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이지만, 그 범위는 서·남해안 갯벌이므로 고창에서 갯벌 어업을 영위하는 공동체는 국가무형문화재 ‘갯벌어로’의 ‘전승공동체’이다. 이들의 생업활동과 의례, 어업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고창 해양신앙과 유적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보존

전통적인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부터 소규모 간척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삼양사 대표인 김연수가 1936년 해원(海元)농사주식회사라는 일본인 회사의 간척 공사권을 인수하여 해리면 지역의 간척 공사를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삼양사는 심원면 고전리·공산리·만돌리·주산리와 해리면 금평리·동호리에 걸친 7.24km²를 간척했다.¹¹ 이와 관련하여 1977년 간척지준공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간척지준공기념비는 동호리에서 만돌리로 넘어가는 수명교의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해리천이 바다로 흐르고 있으며, 간척지는 염전, 논,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마을주민들에게 갯벌은 쓸모없

는 땅이 아니라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밭’이고, 반찬거리가 나오는 곳이자, 물고기를 잡는 공간이다. 또한 김양식 등을 하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이고, 농업과 달리 수확량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신앙이 발달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고창 해안지역 마을신앙 전승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축문은 구동호, 두어마을, 동촌마을에만 전해지는데 그 외 마을은 처음부터 축문이 없었는지 혹은 전승과정에서 소실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심원면 만돌리에서는 양력 10월에 김풍년기원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김양식업이 확대되면서 김양식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를 모신 것에서 시작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선착장에서 수협이 주관하여 단체로 풍년제를 지낸 후 갯벌에 있는 김양식장 앞에서 각자 풍년제를 지낸다.

신격은 당산이 한 곳만 있는 곳은 당산할머니, 두 곳이 있는 곳은 당산할머니와 함께 당산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보편적이다. 철룡은 주로 가정신앙에서 집 뒤나 장독대에 모셔져 집터를 관장하는 신격인데, 전북 해안마을에서는 마을신앙의 신격으로도 좌정되어 있다.

만돌리 대죽도는 무인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단된 마을은 새마을운동의 영향이 가장 크다. 용기마을, 서전마을, 두어마을 역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면서 중단되었으나 마을에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당산제를 다시 시작한 곳이다. 당산제라는 것이 외부의 영향으로 중단되기도 하지만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재개되기도 하는 유동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부안군 선운리 진마마을은 열두당산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당산의 규모가 컸으나 새

10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사유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갯벌어로 역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일인 2021년 12월 20일에 고시되었다(문화재청고시 제2021-160호, 2021.12.20.).

11 디지털고창문화대전, 〈간척지 사업〉, <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toc/GC02801750>(접속일: 2022.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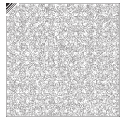


표 1 고창군 해안마을 마을신앙¹²

지역	명칭	신격	제일	축문	현존 여부	
해리면	상부마을	당산제	철륜, 당산할머니	1.14.	-	○
	구동호	당산제 / 영신제 / 풍어제	할아버지당산, 큰당산, 작은당산, 당할머니	1.2. 2.1.	有	○
	광승리	당산제 / 풍어제	확인못함	1.14.	확인못함	×
	외경, 내경마을	당산제	확인못함	1.15.	확인못함	×
심원면	용기마을	당산제	할머니당산	1.3.	-	재개
	수다마을	당산제	당산	1.14.	-	○
	하전리 서전마을	당산제	당산	1.3. 1.15.	-	재개
	사등마을	당산제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	1.2. 1.15.	-	○
	두어마을	당산제	당산	1.14. 1.15.	有	재개
	난호마을	당산제	할머니당산	1.14.	-	×
	구시포	당산제	할머니당산	1.14.	-	○
	만돌리 대죽도	당산제 / 당제	확인못함	1.15	-	×
	만돌리	김풍년기원제	용왕	양력 10월 조금	-	신설
	월산리	당산제	확인못함	1.15.	확인못함	○
상하면	고전리	당산제	서씨할아버지, 주씨할머니	선달 그림	확인못함	○
	동촌마을	당산제	할아버지당산, 할머니당산, 종각당산, 철륜	1.14.	有	격년
흥덕면	용정리 판정마을	당산제	확인못함	확인못함	확인못함	×
	후포	당산제 / 당제	당할머니, 솟당산, 암당산	1.1.	-	×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당산제 / 영당제	산신	1.3.	확인못함	×
	상암리상포마을	당산제	당산	선달 그림	확인못함	○
	선운리 진마을	당산제	열두당산→여섯당산	확인못함	확인못함	재개했으나 다시 중단

마을운동시기에 당산나무를 베어버리며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 여섯 당산나무를 다시 심으며 재개되었으나 5년 정도 지속되었다가 경비문제와 마을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다시 중단되었다. 필요에 의해 재개되었더라도 지속동력이 없어 중단된 사례이다.

곳은 해리면 구동호, 심원면 용기마을, 상하면 구시포, 하전리 서전마을, 부안면 내죽도를 꼽을 수 있다. 내죽도의 마을신앙은 중단되었으나 그 유래가 해양신앙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1967년 조사된 보고서에 실려 있는 유래는 다음과 같다.¹³

Ⅲ. 공동체의 무형유산으로서 고창 해양신앙의 전승 활성화

마을신앙 중에서 해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지금으로부터 370년 전에 바다에서 귀작이 떠나 주러 본이 그 속에서 용이 그려 있는 용기 1매와 풍물(징, 갯가리, 장구)가 들어 있었다. 그것을 신기롭게 생각하여 영당을 짓고 매년 1번씩正月 3일을 기하여 제사를 지내며 도

12 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전북해안지역 마을공동체신앙』, 전북대학교박물관. 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2년 5월 고창현지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다.

13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마을제당』 제5권 전라북도편, 국립민속박물관, pp.44-45.

1967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01년 발간된 보고서이다. 작성자는 당시 죽도국민학교 황석기(남, 45세)선생님이 작성하였다. 당시 맞춤법을 그대로 본문에 인용하였다.

민의 불행을 막기 위한 제당으로 전해왔다.

370년 전에 보관했던 용기 및 풍물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없어지고 지금은 부락에서 별도로 용기와 풍물을 준비하여 제당에 보관하고 정월 초사흘에는 기를 끊고 풍물을 쳐 고사를 드린다. 제사를 들리지 않는 해는 동네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액이 별로 없고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통해 신성한 증거품이 떠내려 온다는 부래(浮來) 모티브는 해안은 물론 강이 흐르는 내륙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강에서는 동선(動線)이 상류에서 하류로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바다, 특히 섬에서는 사방이 열려 있는 공간으로 해류와 관계가 있다. 해류는 갯벌에서 채취어업을 하는 이들과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생업,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생태지식이다. 내죽도의 해류를 통해 떠내려 온 궤짝에는 용이 그려진 깃발, 풍물이 들어있다. 용은 물과 관련된 신성한 동물로, 용이 그려진 깃발은 신성한 증거물이다. 또한 그것이 내죽도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죽도라는 공간이 신성한 공간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 사건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전승되면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결속시킨다. 정신적 결속의 증거이자 신성한 증거물이 떠내려 온 사건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주민들은 ‘영당’을 짓고 매년 당산제를 모셨다.

혼돈의 공간인 바다를 지나 내죽도에 좌정한 신성한 궤짝의 물품들은 그 자체로 내죽도를 신성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질서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제를 모시지 않으면 신성한 질서는 흔들리고 ‘동네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액(漁額) 즉 어획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동네의 안전과 생업의 유지를 위해서 일년에 한 번씩 당산제를 지내면서 약화된 신성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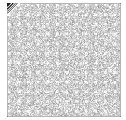
그러나 내죽도의 영당은 1970년대 중반 무렵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면서 당산제가 중단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당 건물도 무너지고 관련된 기물도 땅에 묻었다. 2000년대 초반 영당 복원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⁴ 기독교의 유입, 새마을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업의 쇠퇴도 추가 요인이다. 1970년대 죽도의 어업기반이었던 조기어장의 흥어는 어업을 기반으로 한 내죽도 경제구조에 타격을 가져왔으며 내죽도 영당의 ‘어액’에 문제가 생기자 영당의 신앙적 기반도 무너진 것이다.

동호리 역시 어업의 쇠퇴와 함께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외부에서 불려오던 무당 없이 마을주민들이 주가 되어 당산제를 모시며, 일 년에 세 차례 지낸 것 역시 한 번만 지낸다. 마을에는 네 곳의 당산과 한 곳의 영신당이 있다. 당산은 나무와 입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른 미역을 걸어놓았다. 내죽도에도 당집이 있었지만, 당산제의 중단과 함께 당집도 무너졌으며 현재 해안마을에는 동호리와 고전리에 당집이 남아있다. 기와를 올린 세 칸 크기의 당집 내부에는 무신도가 걸려 있다. 지금은 당할머니와 그 뒤에 세 딸이 서 있는 화상이 액자에 걸려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타지역의 어부¹⁵가 풍랑을 피해 마을에 들렀다가 훔쳐갔다고 한다. 이전 화상은 할아버지의 그림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장군이었다는 사람도 있다. 정확한 신격을 확신할 수 없지만 남성신격의 그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67년 보고서에는 영신(靈神)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1명의 여인이, 오른쪽에는 2명의 여인이 한복을 입고 그릇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120×180cm) 이와 별개로 영신의 호위로 갑옷에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있는 그림(70×40cm)이 있었다.¹⁶ 주민들

14 디지털고창문화대전. <봉암리 죽도 영당>. <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toc/GC02801533>(접속일: 2022. 9. 25.).

15 제보자에 따라서 전라남도 어부, 경남 남해, 하동, 통영의 어부 등등 여러 지역이 언급된다. 정확한 지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기철이 되면 그만큼 많은 어선이 동호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6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마을제당』, 제5권 전라북도편, 국립민속박물관, pp.94-95.



의 증언은 이 두 그림의 구분없이 각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림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량에는 ‘승정기원후사주신유 팔월 이십칠일 계미년시 상량(崇禎紀元後四周辛酉 八月 二十七日 癸未年時 上樑)’이라고 적혀 있어 적어도 1861년(철종 12)¹⁷까지 그 역사를 소급할 수 있다. 영신제를 지내기 전날 제관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밥, 떡, 과일 등을 종이에 싨다. 이것을 세 개 준비하는데 이것은 다음날 각각의 당산 밑에 땅을 파고 묻는다. 영신제가 시작되면 마을 풍물패가 제관집에 모여서 풍물을 치면서 당산을 돌며 제를 모신다.

용왕제, 용왕님 제사, 수록제, 당할머니제사 등으로 부르는 풍어제가 예전에는 선주들이 모인 가운데 무당과 함께 지냈지만 지금은 무당 없이 사람들이 모여 당집에서 제를 모신다. 오후에 밀물이 들어오면 마을 풍물패가 배를 타고 바다에서 풍물을 치며 주변 바다를 한 바퀴 돌고, 용왕에게 헌식을 하고 돌아온다. 무당이 있을 때는 무당도 같이 나갔다. 바다로 나가는 배는 깨끗한 사람의 것을 고른다.

동호리 영신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좌정담 보다는 교체된 화상에 관한 이야기와 신별담·영험담이 주를 이룬다. 화상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지만 과거에 있던 화상을 타지역의 어부가 훔쳐갔고 지금 있는 화상은 그 후에 다시 그린 그림인데 기존의 그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별담은 당산이 있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는 것으로 당산나무 가지를 건드린 사람은 시름시름 아프게 된다는 것이다.

영험담은 가장 다양한 내용이 수집되고 있다. 바다에 안개가 끼면 당할머니가 바다에 불빛을 비추어 준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으며, 닻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파손되었는데 당할머니의 영험함으로 인

해 구시포로 떠내려와 살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안개 속에서 길을 인도한다는 내용은 다양한 변이형이 수집된다. ‘안개가 낄 때 당할머니가 불빛을 비춰준다’, ‘300년 전 바다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불을 밝’혔다. 그래서 당집을 지어놓고 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 ‘전깃불이 없는 시대에, 등대도 없는데’‘등대불 모양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 ‘밤이 되면 높은 산에서 등대처럼 서서 손가락으로 천천히 배의 선로를 비’추었다.

해무(海霧)가 자욱하거나 어두운 밤에 등대처럼 길을 안내한다는 이야기의 여러 변이들은 영신당이 어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들이다. 보고서 중에는 ‘신령님의 등대’¹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심원면 용기리 용기마을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지낸다. 용기마을은 1972년 당산나무를 베어내면서 제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해난사고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1986년 7월에는 해난사고로 주민 13명과 외지인 다수가 사고사하였다. 이에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음해부터 당산제를 다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졌다. 당산제가 있던 자리에 팽나무를 다시 심었다.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는 50여 호가 있는데 농지가 적어 80%가 어업에 종사한다. 30여 척 배가 꽃게, 주꾸미, 새우, 병어, 농어, 송어 등을 주로 잡는다. 바닷가쪽에 할매당산나무가 서 있어서 정월 열나흘날에 당산제를 지낸다. 이때 선주와 선원들은 각자 배에서 뱃고사를 드리고 할매당산으로 모여 음복한다. 당산제를 지내는 제관들과 별도로 선주들도 각자의 집 안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당산제를 마치면 바로 주꾸미어장이 형성되어 조업을 시작한다. 구시포의 특이한 점은 당산제 후에 ‘공치기’가 이루어진다. 공치기, 장치기로 부르는 이 놀이는 마상 격구가 지상화된 것으

17 몇몇 보고서에서 1861년을 속종 7년으로 표기한 것이 있는데 이는 1681년 속종 7년의 오키이다.

18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마을제당』, 제5권 전라북도편, 국립민속박물관, p.95.

로 19세기 이후 전국에서 전승되던 겨울철 놀이였다. 그런데 구시포에서 장치는 해상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칠산바다에서 갈치잡이하던 시절로, 갈치잡이 나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 배에 탔던 선원 모두 수장되었다. 마을사람이 점장이를 찾아서 점을 보니, “마을이 말형국인데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의례를 갖추지 않아서 재앙이 찾아왔다. 말은 달리는 속성이 있고, 또 달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굶을 치지 말고 공치기를 하면서 달리면 마을에 재앙이 사라진다”¹⁹라고 하였다. 그후 주민들은 공치기에 참여를 하게되었는데 날씨가 좋지 못해 공치기를 못한 해에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한다. 공치기 자체는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민속놀이이지만 구시포에서는 이것이 풍수화소(話素)와 해상안전화소가 결합되어 어촌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심원면 하전리 서전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위해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 입구에 있는 두 그루의 팽나무를 바깥당산(할아버지당산), 안당산(할머니당산)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당산’이라고만 부른다. 새마을 운동시기부터 약 20년 정도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마을터가 세기 때문에 당산나무가 없으면 젊은 사람이 죽거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건강했던 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청년들이 다치면 당산제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한다. 당산나무에 잎이 피는 것을 보고 그해 농사, 어업을 예측하는데 잎이 밑에서 피기 시작해 위로 올라가면 풍년, 위에서 피기 시작해 아래로 내려오면 흉년이다. 정월 초사흘날 샘제도 모셨으나 상수도 개발과 함께 중단되었다. 또한 당산제 때 줄다리기도 했으나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줄다리기는 하지 않는

다. 당산제와 별개로 고기잡이를 나갈 때 당산에 돼지머리와 소의 뒷다리를 놓고 제를 모시기도 한다. 1967년 조사에서는 당산제의 목적을 ‘부락을 액을 막고 특히 항해(어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명절 고기잡이 나갈 때’에 ‘돈두(豚頭), 우족(牛足)’을 상에 차리고 ‘출어하는 사람의 참배, 장고, 북을 칩’이라는 기록을 볼 때 현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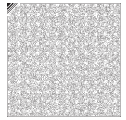
해리면 광승리 상부마을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마을로 절름과 당산할머니를 정월 열나흘날에 모신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선주들이 뱃고사를 모셨으나 어업이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어업을 하는 이들이 당산제를 모신 다음날 줄다리기를 하기 전 ‘개뿔’에서 수신제를 모시기 시작했다. 개뿔은 바닷가 경계인 지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민물이 솟아나 외지 사람들도 개인치성을 드리기 위해 찾아온다.

심원면 만돌리에서는 정월보름에 당산제를 지낸다. 팽나무였던 당산나무가 고사한 후에 느티나무를 새로 심어서 모시고 있다. 대죽도에도 당집이 있었다. 만돌리 주민 김0호(남, 1947년생)에 의하면 대죽도에 사람이 거주하고 분교가 있던 시절에 나무로 만든 한 칸짜리 당집이 있었다. 1970년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며 1975년에는 8호가 거주하고 분교에는 세 명의 학생이 있었다. 1982년 폐교되었으니 1970년에서 1980년대 초반에 당집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신성시하던 공간이라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대죽도 주민들이 마을제를 모시던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당집의 위치는 섬의 서쪽으로 만돌리에서 보이는 섬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현재는 당집이 존재하지 않는데, 당집을 ‘대섬당’²¹이라고도 불렀다.

19 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전북해안지역 마을공동체신앙』, 전북대학교박물관, p.144.

20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마을제당』제5권 전라북도편, 국립민속박물관, p.87.

21 디지털고창문화대전, 〈만돌리〉, <http://gochang.grandculture.net/gochang/search/GC02800184>(접속일: 2022. 9. 25.).



제보자가 워낙 어린 시절이라 내부공간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위치와 규모는 기억하고 있다. 대죽도가 무인도가 된 현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해상안전과 풍어이며 그 형식은 주변의 당산제와 유사했을 것이다. 대죽도와 만돌리 사이에는 갯강이 없어 다른 갯벌에 비해 안전하긴 했으나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물때에 따라 드러나는 4km의 노두 길을 다닌다는 것은 이미 위험성을 내포한다.²² 또한 농지가 없어 식량 자급이 불가능한 곳이다. 살과 채취어업에 의존한다는 것은 바다에 온전히 삶을 기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마을신앙과 별개로 만돌리에서는 김양식과 관련해 김풍년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10월 조금 때가 되면 김발을 설치하면서 김포자가 잘 불기를 바라면서 수협주관의 제의를 올리는데 이를 마을에서는 용왕제라고도 부른다. 바닷가에 제물을 차려놓고 기원을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육지와 달리 바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들의 기원을 담은 것이다. 1990년대 지주식 김양식을 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선착장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선착장에서 풍어제를 지내고, 김양식장별로 포자를 불인 김발을 경운기에 싣고 양식장으로 간다. 각자 김발을 지주에 묶고 개별적으로 고사를 또 지낸다. 김포자는 포도알처럼 검붉은색이라 “포자가 포도알처럼 잘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축원한다.

IV. 복합유산 등재 관점을 통한 해양신앙유적의 보존과 활용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으로 본 고창 해양신앙유적의 생태문화적 가치

유네스코가 정의한 유산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이 중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²³

한국에서는 15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중 문화유산이 13건, 자연유산이 2건이다. 고창의 갯벌이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일부이다. 그런데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복합유산이 있다.

표 2 세계유산 목록통계(2021년기준)²⁴

구분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합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00	38	8	146
유럽과 북아메리카	468	66	11	545
아시아 및 태평양	195	70	12	277
아랍연맹	80	5	5	88
아프리카	54	39	5	98
합	897	218	39	1,154

22 주민들은 만돌리에는 갯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1910년대 제작된 지도를 보면 만돌리에서 계명산 동쪽을 끼고 갯강이 흐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민들이 말하는 “갯강이 없다”는 동호리와 만돌리 사이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후의 모습일 것이다. 1910년대 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에서 참고하였다.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접속일: 2022. 9. 25.).

2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접속일: 2022. 9. 25.).

24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https://whc.unesco.org/en/list/stat#s12>(접속일: 2022. 9. 25.).

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문화유산 6개 항목²⁵, 자연유산 4개 항목²⁶ 중 각각 하나 이상씩을 만족해야 한다.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계유산은 중국의 태산,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루루, 중국 황산, 페루 마추픽추, 이탈리아 나폴리 역사 지구 등 총 37개가 존재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묘향산과 금강산이 추후 등재 시도에 따라 복합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자연물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고창의 갯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자연유산 x 기준)를 만족시켰다. 여기에 대죽도의 해양제사유적과 현재도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사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복합유산으로의 가치가 인정될 것이다. 대죽도의 제사유적과 마을제사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문화유산 iii기준)에 해당될 것이다. 이미 고창화순강화고인돌이 해당기준에 부합되어 등재되었다.

고창 해안가의 마을신앙들은 바다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과 정신세계를 반영한 의식들이다. 마을신앙들은 그 유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민들에 의해 구전되어온 좌정담, 유래담, 영험담 등은 유무형의 탁월한 가치를 지닌 행사이며 살아있는 전통이다. 이는 마을에 존재하는 당산, 당집, 고고학적 유적들과 결합하면서 중요성을 더한다.

고창군 해안가의 마을신앙은 마을의 평안과 함께 해상안전, 풍어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어촌지역 해양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대죽도에서 발굴된 제사유적과 송나라 문헌(『고려도경』)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지역성을 뛰어넘어 초국가적인 개방성을 가진다. 이는 유네스코에서 언급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연관되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5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ii) 오랜 세월을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측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측하는 대표 사례일 것(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26 (v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v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2. 고창 해양신앙유적의 복합유산등재의 적합성과 보존활용

1) 균형, 완전성, 진정성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과제가 여러 가지로 상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유산 수와 자연유산 수의 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등재된 비슷한 유산을 한 데 묶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진정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과 관련하여 진정성/완전성의 개념은 세계유산 관련 활동 경험에서 출발하여 진정성에 관한 나라 회의(Nara Conference on the Authenticity)에서 적절하게 형성되었다. 이 개념은 모든 유산 현장 개입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평가 도구이기도 하다. 무형유산과 유형유산 모두를 온전히 보존 및 유지하고 양자 사이에 균형을 달성하는 한편 유산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이 어떠한 이러한 완전성을 구체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²⁷

유산의 지속성 담보는 세계유산협약의 큰 도전과제이다. 이른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유산의 지속성 담보는 세계유산협약의 큰 도전과제이다. 이른바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유산은 '지역주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녹아 들어야 하며 기능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변화도 수용해야 한다.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추구한다고 해서 변화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²⁸ 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생활여건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보존과 창조의 균형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타마스 페에르디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 거버넌스 관련 도전과제로 '균형'과 '대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따르는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유지역의 다양한 특징을 대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수치를 기준으로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 지역들이 평등하게 또는 불평등하게 대표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균형 또한 숫자가 아닌 다른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계유산협약의 체제 정비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과 2003년에 제정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을 함께 적용하여 각각 다른 지역이 지닌 '특징' 또는 특수성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²⁹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유산 등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단독 유산은 숫자가 한정적인 반면에, 연속유산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갯벌의 등재도 그러하다. 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지역적으로 문화권을 형성하며 전개된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문화유산들은 여러 유산들을 합쳐야 그 유산의 가치가 잘 설명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복합유산에도 적용 가능하다.

2) 성공적 관리를 위한 체계와 지역사회 및 NGO의 참여

세계유산협약의 이해 범위 내에서 적절한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들을 확실히 보존할 수 있었다. 이행을 담당하는 관리기구

²⁷ 타마스 페에르디, 2018, 「세계유산협약 이행 및 운영의 당면과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외교부·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p.55.

²⁸ 타마스 페에르디, 2018, 위의 글, p.48.

²⁹ 타마스 페에르디, 2018, 위의 글, p.49.

의 역할 역시 중요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종류의 유산을 적절히 관리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유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해결책은 특정 유산의 전통적 '관리' 시스템에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³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유산 주변에 해당하는 완충구역과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개발 압력은 유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 유산 주변의 개발은 유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로 발생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유산 자체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른바 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이 요구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재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이다. 세계유산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과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세계유산이 오래도록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보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류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 주변환경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세계유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

고창주민과 지역사회의 대규모 참여가 가능하려면 실제로 정보에 기반한 하의상달식 접근방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및 글로벌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닿아 있기에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안을 다룰 때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유산 복합유산 등재가 유산과 생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성격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혜택과 성공이라는 희망도 위험하며 관광산업에 노출되었을 때 주민들이 가치를 보존하고 전통적인 활동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

을 때만 성공이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참여는 복합유산 소재지 내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보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유산의 등재 효과는 광범위한 지역에 미칠 수 있으며, 소재지 내 모든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복합유산의 수용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관광 진흥을 위해 모든 추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복합유산 보존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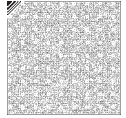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지역의 고인돌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관리는 정부와 관련 전문가와 단체, 그리고 고창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V. 맺음말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인류가 공동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실시되고 있는 세계유산제도는 국가의 품격과 대외 이미지 제고, 유산의 상징성 제고와 파급효과, 유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 증대, 유산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의 증대 유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고창갯벌, 고인돌군) 과 인류무형유산(판소리, 농악)을 등재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그 어느 지역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보호체계를 다질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창의 갯벌에 접해 있는 마을 신앙은 해양의 생태적 환경과 지역



민의 문화가 어우러져 복합문화유산의 성격을 지닌 해양신앙으로 전승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유산을 고창이라는 지역의 장소로서 접근하였을 때 해양생태계와 신앙시설의 연계는 유산을 점과 선 단위를 넘어 면 단위의 보존개념과 범위로써 온전하게 보존·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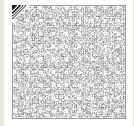
이 글은 해양신앙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밝히고, 고창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정책에 거시적이며 통합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비전적 절차와 전략 제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미진한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 이 논문은 고창군이 주최한 「2022년 고창학 연구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참고문헌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https://map.ngii.go.kr/ms/map/NlipMap.do>, <http://gochang.grandculture.net>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https://whc.unesco.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디지털고창문화대전 <http://gochang.grandculture.net>
- 고전번역데이터베이스 <https://db.itkc.or.kr>

- 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고창군지』하권, 고창군.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동호마을의 공동체신앙와 문화유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미간행).
- 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전북해안지역 마을공동체신앙』, 전북대학교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2021, 『한국생업기술사전』어업1,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한국의 마을제당』제5권 전라북도편, 국립민속박물관.
- 무노르 부슈나키, 2018, 「세계유산협약의 이행현황, 성과와 도전과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30주년 국제세미나』, 외교부 · 문화재청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 보존관리 인간, 자연, 문화』 IUCN, NORWEGIAN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ICCROM, 2022. 8. 2.



UNESCO Mixed Heritage Concept Sustainable Preservation of Gochang Maritime Religious Relics

HWANG Jihae* Researche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YUN Sungchul Researcher, Research Center of Regional Culture

*Corresponding Author: folk9599@korea.kr

Abstract

Community beliefs of the coastal villages in Gochang are cultural activities and rituals manifesting the hopes and spiritual worlds of the locals who live off the sea and tidal mud. Along with their societal functions wishing for peace, maritime safety, and good catches, the values of the Jwajeongdam (How god came to be), Yuraedam (History of worshipping), and Yeongheomdam (Stories of miracles), as living heritage need to be reexamined according to the recent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ommunity beliefs of the coastal villages in Gochang, where outstanding universal intangible and tangible values coexist, have been perpetually transmitted in interactions with tidal mud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s of the sea. They reinforc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UNESCO mentions and sustainability that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Furthermore, a coastal area is endowed with international accessibility over regionality. Hence the community beliefs are charged with eco-cultural values, which its preservation and promotion should also focus on to provide policies and protection activities.

In short, the tidal mud and community beliefs of coastal villages in Gochang, which according to the concept of UNESCO’s “mixed heritage,” meet the values for natural, cultural, and intangible heritage at the same time, and so must be approached not in the scope of points or lines, but also in surfaces when arranging protection initiatives.

Keywords Gochangmaritime, community beliefs, World heritage, complex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Received 2023. 12. 20. | Revised 2024. 1. 29. | Accepted 2024. 2. 21.

